

가을철 안방극장 '역사드라마' 한판 승부?

가을의 문턱 9월, MBC와 SBS가 잇달아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사극 '신돈'과 '서동요'를 각각 선보일 예정이어서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MBC-TV의 '신돈'은 주말 남성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본격 정치역사극. 반면 SBS-TV의 '서동요'는 2030세대의 여성층 시청자를 겨냥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이다. 방영을 앞두고 있는 두 드라마를 살짝 들여다봤다.

신돈 VS 서동요

	신돈	서동요
장르	정치 역사극	러브스토리
시대	고려 말	백제(삼국시대)
주인공	신돈:손창민 공민왕:정보석 노국공주:서지혜	서동:조현재 선화공주:이보영 사택기루:류진
주 촬영지	고창 선운사	고창 선운사 부여 오덕사 인근



SBS TV의 '서동요'의 선화공주役に 이보영 (사진 왼쪽)과 서동 역을 맡은 조현재.

'요승' 이미지서 개혁가로 재조명
300평 규모의 법왕사 세트장 눈길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본떠 제작

신돈
9월 24일부터 주말 안방극장에 방영될 '신돈(밤 10시)'은 MBC가 올해 10대 기획 중 하나로 추진하는 대작. 박종화의 소설 '다정불심'을 원작으로 공민왕과 원나라 노국공주의 사랑, 신돈과 공민왕의 개혁 등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한 대하사극이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승인 보우의 손에 키워진 신돈, 중국, 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뒤 중생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이상을 품고 고려말의 혼탁한 정계를 개혁할 그는 원나라 노국공주와 결혼한 공민왕을 도와 개혁을 시도하지만 모함받아 공민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신돈 역은 손창민, 공민왕 역은 정보석, 노국공주 역에는 신인 탤런트 서지혜, 보우국사 역은 임혁이 맡는다.

MBC 드라마국 정은현 부국장은 "'요승'의 부정적 이미지로 알려진 신돈을 개혁가로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손창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은 신돈의 개혁 정치가의 모습과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무난히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돈'의 주 촬영은 고창 선운사와 용인에 마련된 MBC 종합촬영장에서 이루어진다. MBC는 용인시와 공동투자자 총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 종합촬영세트장을 만들었다. 이 세트장의 면적은 1만 여 평에 이르며 고려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사찰, 궁, 마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 세트장에 위치한 사찰의 이름은 '법왕사(法王寺)'. 300여평 규모에 대웅전, 법고루, 요사채 등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80평 규모에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 떠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건축했다. 세트장의 단청을 맡은 김윤오 단청장은 "역사사료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의 단청을 재현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미륵사 창건설화 배경으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승무 등 백제 불교문화 곳곳에

서동요
SBS 월화 드라마 '패션 70s'의 후속 프로그램 '서동요(밤 9시50분)'는 9월 5일부터 방영된다. '서동요'는 익산 미륵사의 창건설화를 배경으로 무왕(아명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로맨틱하게 담는다. '서동요'는 어린 시절 마법을 따는 소년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만나 혼인 후 백제 30대 임금 무왕에 등극하는 과정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SBS측은 '서동요' 제작을 위해 충남 부여군 충화면 가회리 덕용저수지 부근에 백제 오픈세트장을 건립 중이다. 주 촬영지는 고창 선운사와 부여 오덕사 인근의 오픈세트장이다. 특히 서동요는 젊은층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한 초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 서동은 조현재, 선화공주는 이보영, 선화공주를 놓고 서동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사택기루는 류진, 무왕의 어머니 연가모 역은 이일화, 서동의 양아버지인 백제 기술공방의 목수인 목나무 역은 이창훈 등이 맡아 물오른 연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은 '대장금' '허준'으로 널리 알려진 이병훈 PD. 이 PD는 "무왕을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임금으로 그릴 예정이다. 재미있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사극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왕 집권당시는 백제불교의 황금기로서료를 바탕으로 백제의 불교문화를 담아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왕의 어머니 연가모 역을 맡은 이일화는 현재 백제 전통춤 삼매에 빠져있다. 춤으로 왕에 눈에 띄어 서동(무왕)을 낳게 되는 역할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 이일화씨는 "백제 전통 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춤사위를 보여주기 위해 매일 두 시간씩 교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불교 전문 음악 밴드 '해조음' 창단
8월 31일 첫 공연, '동자' 등 CD 수록곡

처서였던 8월 23일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어디선가 맑은 노래 소리가 서늘한 바람에 실려 오고 있었다. 낙동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의 주인공은 창단 기념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불교음악밴드 '해조음' (사진).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해인정사 종각 앞 특설무대에 서 창단 공연을 갖게 될 '해조음'은 해인사 강주를 지내고 경전 강의를 이룬 높은 수진 스님이 뜻을 내고 불자 음악인들이 마음을 보태 창단한 5인조 밴드다. 트롯이나 성악 일색인 찬불가를 지양하고 색다르고 친근한 불교음악을 만들고, 보급하기 위해 올 초 창단했다. 수진스님과 30여년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리더 홍광현(39·선음), 맑고 단아한 음색으로 '한국의 카렌터즈'로 불리는 윤숙희(40), 금반의 조오령(30), 베이스 강신근(24), 보컬 김경아(32) 등이 해조음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해조음'으로 대중들에게 첫 인사를 하게 되는 창단 공연에서는 '동자' '해인' 등 포크풍의 노래들과 기타 연주곡 등이 선보인다. (051)291-1176

천미희 기자

MBC TV 대하드라마 '신돈'의 주인공들 신돈 역의 손창민, 공민왕 역의 정보석, 노국공주 역의 서지혜(사진 위부터)

이전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조감도 (1,2단계)

자비복지, 승가원이 앞서갑니다.
www.sgwon.or.kr

200명 소쩍새마을 장애인을 위한 자비봉사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건립에
불자님의 동참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큰스님)에서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건립 대작불사의 기공식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불심이 모여 시작된 뜻 깊은 첫 삽이었지만 이 불사가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불자님들의 자비보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명 갈 곳 없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시작된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건립이 불자님들의 자비보시로 원만히 성취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후원계좌 **외환은행 142-22-01167-2**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입금하신 후 전화 (02-928-07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건립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는...
세제혜택과 함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내에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승가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